

그림 여행



라 그랑 자트 섬의 일요일 오후
(A Sunday Afternoon on the Island of La Grande Jatte c. 1884-1886)

조르주 피에르 쇠라(Georges-Pierre Seurat 1859 - 1891)
(캔버스에 유채 207.6 cm x 308 cm 시카고 미술관)

프랑스 화가 조르주 쇠라는 이 그림을 꼬박 2년에 걸쳐 그렸다. 기존의 화법처럼 팔레트 위에 물감을 섞어 칠하지 않고 순수한 원색 그대로의 물감을 뾰족한 붓끝에 묻혀 점같이 찍어 그리는 점묘법이란 화법으로 완성했다. 온갖 색채의 명도와 채도가 복합되며 미세한 점들이 모여 한 쪽의 풍경화를 이루었다.

그림의 소재는 어느 일요일의 풍경. 19세기 말 프랑스 파리 교외 '그랑 자트'라는 섬에서 휴일을 맞은 시민들이 오후 한때를 즐기고 있다. 당시의 복장과 풍습이 잘 묘사되어 있다. 멀리는 밝고 희

미하게, 가까이는 어둡고 뚜렷하게, 원근법을 사용해 물체가 뒤로 물러나는 입체감을 보여준다.

사람들의 모습은 풍요롭고 한가하다. 각자 자신의 일에 몰두하고 행동하고 있으나 이상하게도 모두 정지되어 있는 듯 보이기도 한다. 인간의 군상을 이루면서 그 무리 속에 개개인은 또 그저 한 부분에 불과한 것 같기도 보인다. 무수한 점들이 모여 한 쪽의 그림을 이루었던 무수한 사람들이 모여 한 쪽의 그림을 이루었다. 그림의 기법과 너무나 잘 맞아 떨어지는 소재가 아닐 수 없다.

조르주 쇠라가 당시 대세이던 인상화 화풍을 거부하고 빛과 색채의 속성을 과학적으로 연구해 그린 이 그림을 볼 때마다 당시로서는 파격적인 개념과 기술이었던 그의 점묘법 화풍에 대해 감탄했었다. 그러나 온 세계가 전대미문의 재난을 만나 평범한 일상이 정지 해버린 2020년 4월에 이 그림을 보니 박제되어 버린 인간의 삶을 보는 것 같아 마음이 착잡해졌다.

거기 그대로 있건만 움직임이 없는 인간 군상의 풍경은 화려한 색채에도 불구하고 적막하기만 하다. 멈추어 있기에 어디에서 무엇이 튀어 나올지 모른다는 공포마저 스멀거린다. 항상 화사하고 평화롭게만 생각했던 조르주 쇠라의 그림이 을씨년스럽게 느껴질 줄이야. 전후 사정에 따라 우리의 시각은 뜻하지 않은 방향으로 휘어질 수 있다.

적막과 불안 속에 시간은 흐르고 있다. 어서 이 힘든 시간이 지나 '라 그랑 자트 섬의 일요일 오후'에 갇힌 사람들이 다시 활동을 개시하는 날이 오기를 바랄 뿐이다.

《김동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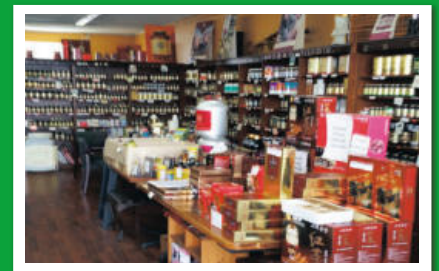
가든그로브 비타민 전문점

Organic Vitamin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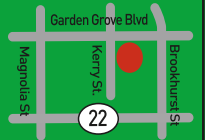
- 500종류 정도의 비타민과 원료구비
- 비타민 원료 : 아사이, 마퀴, 블루베리, 고지베리베리, 아로니아, 그라비올라, 크랜베리, 비타민나무, 여주농축액, 차콜, 콜라겐, 블랙커런트, 모링가, 로얄제리원액, 페루산삼, 마카, 트리블러스(산삼보다 높은 사포닌 함유)



이제 비타민은 전문점에서 정확한 진단 후 복용하세요.



Tel. (714)534-4938
9972 Garden Grove Blvd #G
Garden Grove, CA 92844



리뉴 바디종합정비

RENEW
AUTO COLLISION REPAIR

RENEW AUTO COLLISION REPAIR, INC.

정확하고 신속하고 믿을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무료 픽업 서비스!

직접 오시지 않아도 됩니다
저희가 픽업해서 수리후
직접 가져다 드립니다

Email : rnauto11782@gmail.com

Tel. 714.248.9636

11782 Western Ave. Suite #11
Stanton, CA 90680